

성폭력 실태조사 고민 빠진 광주교육청

초·중·고·특수교 316곳 전수조사 물리적 한계 학교 자체적인 성폭력 대응력·자정능력 높여야

광주에서 '스쿨미투'가 잇따르자 시민단체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광주교육청이 고민에 빠졌다.

19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고등학교 3곳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벌여 사안이 중한 교사들의 경우 경찰에 고발하고 학생들의 심리치료도 병행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사후적인 조치만으로는 학교 내 성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며 광주지역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광주지역 초·중·고·특수학교 316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때는 교육청과 경찰 등 10여

명이 투입돼 일주일 가량이 소요됐다.

자칫 일방적인 전수조사가 교사와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거나 학교 내 분란을 조장할 수도 있어 비교육적일 수 있다는 고민도 있다.

교육청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은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지만, 평소 학교 자체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대응력과 자정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성폭력 신고와 예방을 전담하는 '성인식개선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학교장 주관으로 주기적인 성폭력 예방교육과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문제가 발생하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경찰 피해 도주하던 도박 용의자 3명 부상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도박 일당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19일 보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0분께 보성군 한 리조트에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은 경력 20여명을 동원해 출동했다.

경찰이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도박일당은 사라진 뒤였으며 60대 남성 등 3명이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이들은 리조트 1층 창문 등을 통해 뛰어 내리다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어 현장을 떠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도박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도망치라고 해서 도주한 것 뿐이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경찰의 출동을 눈치 챈 정도로 체계를 갖추고 있고 도박 참여자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 점을 토대로 잔류를 다니며 도박장을 운영하는 전문 도박꾼으로 보고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만취상태 행패부리다 경찰관 때린 60대 검거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해 모 회사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 A(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유통회사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직원을 협박한 뒤 경찰관 2명의 목살을 잡고 박치기와 발길질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자신과 관련이 없는 유통회사의 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모르는 사람이 문을 부수며 협박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행패를 말리라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임행택 기자

마트서 여성 치마 속 촬영한 30대 검거

마트에서 장을 보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에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B(20대·여)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뒤에 서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범행했다.

수상한 느낌을 받은 B씨는 "도촬을 당했다"며 보안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금품 훔쳐 달아나

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금품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1시4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A(20)씨가 현금 30여만 원과 상품권 담배 등 1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편의점 근무 첫 날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근무교대를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서 주민 4명 야생버섯 먹고 치료 중

경북 문경시 산북면 주민 4명이 독버섯을 먹은 후 구토 및 두통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생병에는 지장이 없다.

문경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 48분께 A(63)씨 등 주민 4명이 인근 야산에서 채취한 야생버섯으로 국을 끓여 먹은 후 구토 등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뉴스

6·13선거사범 7명

구속·598명 단속

전남경찰청

전남지역에서 6·13지방선거 기간 선거사범으로 7명이 구속되고 598명이 단속됐다.

전남경찰청은 19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지역에서는 급품수수와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의 혐의로 총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선거기간 선거사범은 334건, 598명이 단속됐으며 174명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또 현재 238명에 대해서는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속된 선거사범 중에서는 흑색선전이 173명(23.9%)으로 가장 많았으며 급품제공 114명(19.0%), 여론조작 74명(12.3%) 순이다. 공무원 선거개입 등의 혐의로 53명, 선거폭력도 2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2014년에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단속인원은 56명(8.6%) 감소했지만 구속자는 3명에서 7명으로 4명 증가했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간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추석 맞아 분주한 모란시장 '시끌벅적' 민족 대명절 추석을 5일 앞둔 19일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이 제수용품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인력충원·임금인상 타결' 전남대병원 노조 총파업 철회

총파업 투쟁에 나섰던 전남대병원 노조가 사측과의 인력충원 등에 대해 합의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와 병원 측은 임금인상과 인력충원 등에 대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총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업무에 복귀한다고 19일 밝혔다.

노사 양측은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10시간 이상 마라톤 협상을 벌여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 2.0% 인상과 인력 충원 35명, 중환자실 간호인력 1등급 상향 추진 보건직 등

직급상향 등이다.

전남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이번 투쟁의 목표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 충원이었는데 사측은 인사권의 경우 경영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 했었다"며 "인력문제를 노사 협상 테이블로 올려줬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삼용 병원장은 "노사가 극적인 타협으로 파업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환자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앞으로 원활한 소통과 화합으로 건전한 노사관

계를 유지하면서, 지역민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병원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KRS 한국농어촌공사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규모화사업

Fb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대학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